

# 목포시, 글로벌 AI·에너지수도 배후거점도시 도약 모색

전남 서남권 잇단 메가 호재 목포 발전 기회 전략 마련 착수  
전담 TF 운영...주거·교통·물류·인력양성·신산업 등 의견 수렴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 지역에 잇따르고 있는 AI·에너지산업 관련 호재를 목포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해남 솔라시도 일원에서는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비롯해 오픈AI-SK 합작 AI 데이터센터, 한전KDN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가 이어지며 전남 서남권이 국가 AI-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인력 유입과 신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배후 도시의 역할과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만·철도·고속도로 등 광

역교통망과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여건을 보유한 목포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는 이에 대응해 'AI·에너지 배후거점 조성 TF'를 구성하고 전남 서남권 거점이자 배후도시로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는 ▲주거·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접 산업단지 근무 인력 유인 ▲교통 접근성 개선과 물류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 지원 ▲지역 내 학교 및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에너지 산업의 성장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실무 부서 간 협의는 물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AI·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은 전남 서남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목포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광역 차원의 상생 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진도군 축산농 방역점검표 도입하고 전복 양식 감축 지원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책자 발간  
복지·안전 등 6개 분야 81 항목 소개

진도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군민 생활 등을 한 데 모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진도군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변화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매년 책자를 통해 농업·축산과 해양·환경·산림, 복지·보건·인구, 관광·문화·체육, 안전·건설,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총 81개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자율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해 기후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 농업인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역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체형 유용미생물 안정 생산·공급' 등 현장 밀착형 시책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등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의 확립을 강화한다. 복지·보건·인구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개선,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 활동 포인트 제도, 보배섬하우스(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확대, '건강한 가정 맘 편한 생활케어 지원사업' 등 진도군 실정에 맞춘 '저출생·청년·인구 정책'을 강화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일요일 영업 음식점 활성화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밀착형 문화 기반을 넓힌다. 안전·건설 분야에서는 '임회 신동 국도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교통과 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로 배수 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등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와 지원, 전통 반려견 혈통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민원인을 위한 '뚝뚝' 도움벨 운영 등 진도군만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간했다"라며 "책자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이 되는 지원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 공공심야약국

하루 평균 92명 찾아

건강 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해 목포시의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3만 3800여명으로 하루 평균 92명이 심야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목포시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인근의 '비타민약국'(옥암동)은 2021년부터, 보건소 사거리 인근의 '로템온누리약국'(산정동)은 2023년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다. 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의료 공백 시간대에 문을 열어 의약품 제공과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목포시 심야약국은 지난해 총 3만3830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92명이 심야에도 공공보건의료



목포시 공공 심야약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라

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운영과 홍보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암물, 남도장터 연합시스템 참여 가입자 80만명 잡는다

협약 주문·결제·회원 관리 통합

영암군이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처 '영암물'의 남도장터 연합시스템 참여를 계기로 광범위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보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전라남도도와 남도장터, 고흥군, 완도군과 함께 '남도장터-시군물 연합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암물을 비롯한 3개 군의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이 주문, 결제, 정산, 회원 관리 등 핵심 운영 기능을 전남 온라인 농특산물 플랫폼인 남도장터의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등록될 수 있어, 단기간 내 영암물 가입자 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 동의 이벤트, 추가 포인트 적립, 3개 군 공동 특별판매권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영암물 회원 기반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판매 지원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넓히고, 온라인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군은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영암군의회에 설명하고, 홍보 이벤트와 운영 확대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남도장터 통합 시스템 참여를 통해 영암물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매출 구조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 사군 간 협력 판매를 통해 영암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 27기(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 축제를 즐기는 관람객들. <영광군 제공>

##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판 커진다

문체부 '로컬100' 선정 각종 지원  
전국 축제 브랜드 도약 발판 마련

영광의 대표 축제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판을 더욱 키운다. 영광군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 27기(2026~2027)에 최종 선정되면서 전국 브랜드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 가운데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집중 홍보·연계를 통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국민 추천과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역문화 연계성과 관광 파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매년 가을 불갑산

일원을 붉게 물들이는 상사화를 중심으로 자연·역사·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영광의 대표 축제다. 특히 불갑사와 연계된 산사 문화와 상사화에 담긴 서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자연 속 체험형·정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이번 '로컬100' 선정에 따라 축제는 문체부와 관계 기관의 지원을 통해 국내외 홍보, 온·오프라인 인증 현판 제공, 미디어 콘텐츠 확산 등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축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사화축제의 정체성과 품격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키워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용삼 2yong3@kwangju.co.kr

## 신안군, 11월까지 걷기 챌린지 '워크온' 운영

모바일 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신안군이 군민의 걷기 실천 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해 2026년 건강 걷기 챌린지 '워크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신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설정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별 목표 걸음 수는 59세 이하 18만 걸음, 60세

이상 14만 걸음이며,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매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속 신체활동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군 65억원 투입 방조제 등 3곳 정비 사업

무안군이 노후 배수갑문 교체를 포함한 방조제 정비와 인근 저지대 배수 개선, 호소 준설을 연계 추진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무안군은 이번 연계 정비사업에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신만방조제 배수갑문 재가설(방조제 개보수) ▲수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창포호 호소 내 퇴적토 준설사업 등 3건으로, 유역 단위 배수능력 회복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해제면 신만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배수갑문의 성능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40억원(국비 20억원·도비 4억원·군비 16억원)

이 투입된다. 환경면 수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와 설비 보강 사업으로, 총 15억원(도비 12억원·군비 3억원)이 책정됐다. 창계면 창포호 호소 내 퇴적토 준설사업은 유출부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해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이 투입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여건을 마련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완도해양치유센터~송정역 시외버스 운행 확대

완도군은완도해양치유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주말에는 왕복 2회로 확대 운행했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노선은 기존 송정역 경유 시간을 KTX 운행 시간과 여유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왕복 1회만 운영됐으나 주말 추가 운행을 통해 해양치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송정역(9시 50분)을 경유해 완도해양치유센터(11시 50분), 완도공용버스터미널(12시 10분)에 도착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여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경유 시간을 조정했다"면서 "주말 추가 노선 운행이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취재본부장 ejhung@